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정책대결 실종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책선거와 공약대결이 실종돼 정가 비판과 유권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는 학생운동권 출신 86세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51) 후보와 국회 전문 가인 'DI(김대중 전 대통령)맨' 민주당 김명진(53)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이 예고돼 있다. 송 후보는 권리당원 100% ARS투표로, 김 후보는 100% 일반국민 ARS 여론조사로 선출됐다.

각각 당내 경선을 뚫고 본선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왼쪽) 노무현재단 광주운영위원과 민주당 김명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통령 구속 수사해야,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중단하고 개헌 논의 나서야', '문 대통령 남북회담 추진, 동북아 갈등 해소 기여', '대통령의 광복 외교 거시적 안목 성과', '남북정상회담 뜻과 지혜를 모아야'

대표 오만과 독선, 경선 실시와 후보선출에 대한 감사 인사 등으로 채워졌다. 5월에도 5·18진상규명 등 전국적 이슈와 특검인의 캠프 방문, 공천장 수여 등 개인 동정에 집중했다.

4월 초 3차례 시리즈로 제시한 입법과제도 모두 재발 진행 방지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보편적 복지 등 전국적 사안으로 짜여졌다. 송 후보 측은 "집권여당의 후보임에도 지역공약 발표가 턱없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선관위에 제출할 공약집에는 넉넉히 담았다고 밝혔다.

평화당 김명진 후보는 지난달 11일 출간기념회를 시작으로 50건의 자료를 냈으며, 김 후보 역시 '일당 독주 견제', '메가톤급 비리, MB 구속', '한미정세회담 북핵 해결 전환점 기대', '한미회담 북미회담 돌파구 패야', '여야 타협으로 국회 정상화 대행', '남북연락사무소 서울과 평양에 설치 제안', '김기식·대한항공 갑질·최저임금·드루킹 등 중앙발 논쟁에 가까운 자료가 70% 가량을 차지했다.

그런 가운데 '호남민생 쟁기는 광주'의 대변인인 슬로건으로 ▲상무소각장에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 ▲세계수영대회 북한팀 초청 등 광주발 남북교류 활성화 ▲서구 켄벤션·의료·교육복합단지 조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미디아트 시민공원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건 차별화된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후보는 "4대 분야 20개 주요 공약은 이미 구체화했고, 정책집으로도 집대성했다"며 "상대 후보 측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개별 공약 발표를 하지 않아 정책 대결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갑석, 브리핑 자료 50건에 지역공약은 전무

평화당 김명진, 논평 70% 지역공약 30% 차별화 시도

올랐지만 기대했던 정책대결은 찾아보기 힘들다.

송 후보는 지난 2월22일 출마선언 후 이날까지 50건의 보도자료 발표했으나, 선거구인 서구갑과 관련한 지역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부분 국가적 현안이나 중앙 정치권 이슈에 대한 논평식 자료들이다.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 제의, 적극 환영, '이명박 전 대

MB 구속 수사는 탐욕과 계획범죄의 결과' 등의 자료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 징송과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이 주된 내용으로 청와대 또는 중앙당 대변인 브리핑을 연상케하고 있다.

4월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다 여성 전략공천선이 수면 위로 오른 지난달 18일 이후에는 모든 공식자료가 '전략공천 반대', '주미에 당

김병내 민주 남구청장 후보, 지방선거 승리 다짐

남구선관위에 후보등록...정책·공약 중심의 공명선거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후보는 24일 오후 1시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남구청장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6·13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김 후보는 "상대에 대한 비방 없는 정책·공약 중심의 공명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남구민의 승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김 후보는 '힘 있는 구청장'을 슬로건으로 광주남구-전남 나주 혁신도시 상생 1번길 추진, 더 푸른길 조성,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골목길 조성, 구민이사결정 자치분권 선도 등 남구의 10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16개 동별 공통 공약 및 마을 숙원사업 등을 담은 우리 동네 생활 공약을 내세울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이정선 광주교육감 예비후보, 최영태에 단일화 제안

최 후보 "시민단체와 논의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장휘국 후보의 3선을 저지하기 위해 24일 최영태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위 진보교육감 장휘국 후보가 쌓은 8년 동안의 적폐를 채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광주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단일화 제

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자기 편 사람들만 챙기며 불공정 인사와 불통행정을 벌여 온 상층의 끝이 너무나 깊다"며 "장 후보의 진보는 자신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최 후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혁신교육감 시

대해 "시민경선 추진위가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시민경선 불참 이유로 "내가 빠진 것이 아니라 왕대를 당했다. 장휘국 교육감의 대척점에 있는 후보를 신랄해야 하는데 또 다른 장휘국을 뽑는 경선이었다. 경선 추진위가 비민주적이고 비협신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최 후보와 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장 후보를 앞서고 있다"며 "단일화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장 후보를 물리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 후보 측과 기존에 단일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해 왔다가 '단일화 방식은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뉴시스와 진화통화에 "이 후보가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니 시민경선에 참여할 26개 시민사회단체와 논의를 해봐야겠다"며 "여론조사는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오래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통해 가족호텔 조성"

순훈도 순천시장 예비후보

순훈도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가는 정책의 일환으로 오래된 도심권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 가족호텔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순 예비후보는 "관광객 인구가 순천의 인구가며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은 2만7000여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다"면서 "실제 신도시 개

발로 인해 아파트 공실이 많은 연향동의 경우 공동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텔 관리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와 노인일자리를 창출, 주변상권 활성화도 가능하며 연향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순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 추진을 위해 시민들과 예술인, 설계사 등 전문가들의 철저한 참여와 토론을 통해 전체적인 큰 그림



을 우선 만든 뒤 세부적 사안을 마련해 실현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순 예비후보는 "머무는 순천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대표 음식개발, 불이시절 확충 등 정책들을 계속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용계산 프로젝트 등 승계...봉화산 출렁다리는 재검토"

허석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23일 "순천시장에 당선된다면 화합과 단결을 위해 민선8기 사업의 대부분을 승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흥훈 시장의 역점 시책사업인 일명 '용계산 프로젝트', 즉 '순천기적의 숲' 조성사업을 비롯해 잡월드 등 대부분의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용계산 프로젝트는 서면 용계산 일원 1300ha에 총 사업비 480억원(국비 240억원, 지방비 240억원)을 들여 순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담은 기적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허 후보는 "다만 봉화산 출렁다리 등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사업 중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예비후보는 "순천시장이 되



면 청와대나 중앙정부, 중앙당의 인맥을 총동원해 주요한 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장 먼저 산림청 예산이 미반영된 용계산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